



○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이야기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SDGs란 무엇인가

- 사회를 위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사람 중심적인 [17개의] 보편적이고 변화를 만드는 목표
- 2015년 “세상의 변화와 혁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선언한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대표에 의해 만장일치로 공동 작성·합의된 국제 목표
- 생물권(환경), 사회(보편적 사회문제), 경제영역으로 구분



(출처=지속가능발전포털)

SDGs란 무엇인가

- 지속가능개발의제라는 기치 아래 2030년까지 달성 목표
- 17개 지속가능개발 목표 아래 169개의 세부목표와 진척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232개의 지표유엔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세부목표가 다양한 국가 현실, 역량 및 개발 수준을 고려하며 국가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므로 통합적이고 불가 분하며 글로벌하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명시함

단, 법적 구속력 없음. 각국 자체 목표 결정

- SDGs의 목적과 가치는 국가들이 현재 가장 심각한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뒷받침하는 프레임워크
- 베텔스만 재단은 목표에 대한 진척상황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여 순위와 성과 제시
- 2020년 기준 대부분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 신기술 적용, 역량강화, 무역정책 개선을 통해 각국의 목표를 상향하고 글로벌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함
- 17번째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유엔 체계 및 기타 행위자들이 함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야한다고 명시함에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전체 성공에 필수적임
- SDGs 추진을 위해 5조 ~ 7조달러의 비용 필요하며 해당 국가내의 투자자원 필요
- 현재 투자자들(소셜임팩트 분야 투자자, 보험펀드 매니저 등)이 SDGs 투자를 타겟으로하는 펀드를 적극 조성 중이며 수익성 높은 신사업 기회 발굴을 통한 유리한 입지 확보 가능
- 국가 정책에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전략과 운영을 SDGs를 위한 기회와 비즈니스 사례에 맞춰 앞장서는 기업 있음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이르는 길

국제적 합의, 환경의식, 사회발전을 이롭게 하는 기업의 부상

-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SDGs 최초 등장 후 201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유엔파리협정 협상을 비롯해 이후 모든 국가 간 대화 핵심이었음
- 1972년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행동을 위한 26개의 원칙과 109개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개괄하고, 공정한 국제, 국내 정책 개발 지원 최종 문서 작성

 **SDGs 비전 구성의 주요 주제(환경, 사회, 경제, 개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진보와 포용, 공정성, 번영 등)가 압축되어 담겨져 있음**

- SDGS 수립 바탕은 20세기 사회, 경제, 환경, 비즈니스 발전의 과정 중 하나로 글로벌 차원에서 함께 모여 세계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 ※ 철학과 정치적 이상, 이상 이니셔티브, 환경운동, 새로운 경제, 사회적 사고, 인본주의적 도덕적 의무, 제국과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의 조합이 유엔임무의 진화과정에 반영됨
- 1990년대 후반 : 기업들이 자사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입지 파악, 보고, 개선의 기준으로 통합
- 2000년대 초반 : 사회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보편적 합의를 이끌었지만 정의 확립 안됨
- 최근 : 기업환경 내 ESG이슈와 광범위하고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관행에 대한 전략이 이해, 측정, 보고, 정의하는 원칙, 프레임워크 및 표준화기구로 구성된 생태계를 갖추며 확실한 개념으로 변신

 **대부분의 국제적 활동이 국제 거버넌스보다는 국제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음**
“세계정부” 즉, 세계 여러나라와 협력하여 규범처럼 다스려야하는 규정이 아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함께 지켜야할 원칙으로 정의되는 주제에 대한 합의 이끌어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합의 주도형 프레임워크 임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

-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연합의 철학적 비전, 유엔창설의 근간이 될 비전 확립
상비군 보유를 금지하고, 공화국으로의 체제 전환을 수용하는 등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을 수용하는 각 국가가
두려워하고 앞으로 두려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세계정부 대신에 자유국가연합을 제안
- 19세기 최초의 국제적인 연합 등장(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국한)
- 1814년 비엔나회의는 200여 개 유럽 국가 대표가 참석해 국제조약을 공동으로 결정했던 최초의 집단 회합
비엔나회의는 나폴레옹 패배 후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최초의 현대적 정부 간 협정
- 1863년 분쟁으로 인한 부상자 치료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 소집. 이는 제네바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짐
1876년 국제적십자위원회로 개명. 최초의 국제 비정부 기구로 독자적인 INGO가 됨
- 1865년 국제전신협약, 1874년 만국우편연합 설립. 창설과정을 통해 국제단체 및 국제협약의 성장을 가속화 하는데 도움
- 제네바대학을 기반으로 전쟁 수행시 용인될 수 있는 선을 정하기 위해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개최(26개국 참여)
1907년 2차 헤이그 회의(46개국 참여)는 세계의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열강(列強)’의 선택에 의해 비준된 최초의 의미 있는 협정
-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은 국가와 지역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치적’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글로벌 협정
- 1907년 국제협회연합 설립. NGO와 유사한 국제기구의 수가 협회의 연간 활동 범위를 보장할 만큼 충분히 많으며 『국제기구 연감』
발행을 통해 NGO 활동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하고 있음

20세기 역사를 볼때 전세계 국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국경을 초월한 기업들이 연결되는 것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연결은 국제적 폭력과 국내의 착취 및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20세기 상반기를 위험한
시기로 만듦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본권에서의 하나의 전환점

- 1941년 미국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네가지 자유로 알려진 국정연설을 했으며 자유의 의미는 해외로 확장되어야하고 국가의 정치, 군사적 행동으로 정하는데 사용되어야하는 등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면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
- 이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사회적 평등과 안전, 동등한 기회와 시민적 자유의 보호

➡ 유엔 인권위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이 58개 유엔 회원국의 투표로 48개국 찬성(나머지 기권)으로 정식 채택

- 1949년 트루먼대통령 취임식에서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저개발' 상태라는 자신의 생각을 처음 공언
(시대적 상황) 식민제국의 해체와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식민제국들은 사회 기반 시설 파괴, 천연자원 고갈 또는 부족, 외부기관에 본국 경제를 의존.
이에 선진국과 기업들에게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

[취임사 일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기술 지식의 혜택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하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자본 투자를 촉진해야한다.
세계의 자유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식량, 의류, 주택자재 및 그들의 집을 덜어줄 기계적 동력을 생산하는 것을 돕는 것이어야한다. 이 과업에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 자원을 공동 출자하도록 권유...
투자자에 대한 보장은 이러한 발전에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한 사람들의 이익보장과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 산업기반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제3세계 국가로 간주되었고, 이는 그들이 서구 자본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의 영역밖에 있음을 의미
- 제3세계 국가에서 계획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 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던 도로, 공장, 및 교통의 중심지가 증축

세계의 절반을 수준 미달로 분류하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더 큰 공동 번영을 일구어 내기 위한 대담하고 관대한 활동인지?
더 큰 공동 번영을 일구어 내기 위한 대담하고 관대한 활동인지? 선의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자 신식민주의의 시작이었는지?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본권에서의 하나의 전환점

- 1960년대, 1970년대 산업화에서 인적 자본의 개발과 경제사회적 원조의 전달로 초점 변화
- 1980년대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해 무제한적 자유무역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 SDGs의 개념으로 대체

- 북반구(Global North, 선진국)와 남반구(Global South, 개도국)으로 재정의
- 남반구는 식민통치 경험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민주의 열강에 빼앗겼던 이전 영토의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년 채택)

“선진국은 그들이 지구 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 지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분담해야 할 책임을 인정한다”

SDGs의 기본 비전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25조(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함)에 포함됨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지구, 인류를 위한 단 하나의 우주선: 한계가 보인다

- 환경보전운동은 1800년대 시작
- 영국은 조류보호로 미국은 개척시대의 황량한 서부의 자연미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동식물 보호, 공기와 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정부 법안 통과)
- 1948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설립. 환경보호 단체 전세계적 진출, 1961년 세계자연기금 설립
-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야생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악화의 원인이 기업임을 인식
- 미국 해양생물학자 레이철 칼슨은 1962년 「침묵의 봄」에서 산업 관행의 환경비용에 대한 질문과 미국에서 살포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DDT와 기타 살충제가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위해 폭로
- 유럽경제공동체의 첫번째 환경행동 프로그램이 1973년 창설되면서 정부의 법률과 규정은 환경보전과 살충제 사용, 인간의 영향화 산업화로 야기된 폐수오염, 고형폐기물 정책, 차량 배기가스, 스모그와 대기질,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이며 산업에 대한 통제로 이어져 최초의 환경 정책 및 규정을 통해 공식화 함
- 1968년 로마클럽*은 유한한 자원을 가진 행성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 시작
(로마클럽)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학계와 재계 리더들이 모여 현대사회, 환경 문제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성된 모임
- 1972년 발간된 「성장의 한계」에서는
인류가 현재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고집하는 한 100년안에 ‘자원 고갈과 생태계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
지속가능성(환경문제 맥락)을 “계획적으로 성장을 통제하는 정책에 기반한 세계 모형의 목표인 ‘전 지구적 평형상태’”라 정의

세계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 출력 연구중

1. 갑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붕괴 없이 지속가능하며,
2.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아무쯁록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기를(그게 아니면 기업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자)

- 1970년대초,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동독 전역에서 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역할에 대한 회의 시작
- 협의회 보고서 『정치경제학, 윤리학, 신학: 몇 가지 동시대의 도전과제』 1979년 발간
 - 기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금 일찍 도착한 고발장.
 - 기업은 고객이 시장에서 최악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지속 불가능한 관행과 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

[WCC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영향 제시]

지속불가능성은 주로 보시 지상주의와 경제 성장률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 그러나 더 면밀히 조사해 보냄, 자본이 사회적 통제 없이 개인과 국가의 수중에 계속 축적되는 방향의 시스템으로 몰려가는 세력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지역공동체에 의해 정의된 사회적 목표 없이 추진되는 경쟁적인 산업화는 과학기술의 오용을 증가시키고, 소비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조장하는데 이러한 수요 증가는 실제적이고 인공적인 요구가 부응하는 신제품의 끝없는 흐름에 의해 뒷받침된다.

경쟁의 심화와 이윤 추구가 과학기술 관리의 향방을 결정할 때 그 결과는 인류와 사회 전체의이익에 부합하는 장기적 시야가 아닌 자본이익율과 같은 단기적 시야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천연자원의 남용이다.

WCC의 세계정의, 참여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 제시

“계속 진행되는 세계 경제 성장이 천연자원과 인간,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로버트 스티버스 저서 『지속가능한 사회:윤리와 경제성장』

“자원과 인구, 새로운 정치 시스템, 새로운 윤리의 측면에서 무한히 지속가능한 경제” 비전 제시

“기술 및 성장과 연계된 관리는 놀라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

기업과 지속가능성에는 초창기가 있다

-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기업이 존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 1970년 “성장”이란 개념으로 조지 P. 미첼(텍사스 우즈랜드 석유회사 소유자, 부동산 개발업자)은 컨퍼런스 개최
1차 1975년 ‘성장의 한계’, 2차 1977년 ‘성장의 대안’, 3차 1979년 ‘성장의 관리’
아스펜연구소 할런 클리블랜드
성장이란 계획하고 실행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성장이 시위와 플래카드로 중단되거나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또는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실제 조치 강구 시간 필요
- 1982년 4차 우드랜드 컨퍼런스가 ‘미래와 민간부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나 기업에 미치고자 했던 영향 미미

기업경영자는 능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호작용, 역할 및 기준을 적극적으로 조사
(선택의 여지 없음)

• 기업이 지속가능성 여정을 시작할 때 고민해야 할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의미있는 참여가 필요
전환기에 산업계의 다양한 인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려면,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기업 경영자들에게 제시해야함
기업은 고객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경영자와 다른 직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직원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글로벌 상호의존성

- 1970년 유엔은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하기 위해 유엔헌장 제1조에 명시된 세번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 달성 네번째,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 수용 이에, 당시 유엔의 정상회담은 지구 환경, 식량공급, 여성에 대한 차별 등 환경 및 사회 문제의 규명과 논의에 집중
- 국제자연보전연맹이 1980년에 발간한 ‘세계보건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공식적인 화두가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공고히 한것은 유엔 산하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1987년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브룬틀란 보고서임

1. 최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needs)”의 개념, 특히 세계 빈곤층의 기본적 필요
2.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대하여 사회 조직의 기술 수준이 보여주는 한계

➡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과 대기 중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지구적 파리 협정의 토대

- 리우선언은 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방법에 관한 27개 원칙 천명.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하며,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한다라고 제시하며 인존주의 강조하며, 다수의 자발적 행동 강령을 제안
- 의제21은 권장목표와 행동을 사회적, 경제적 차원, 자원의 보존 및 관리, 주요 집단의 역할 강화, 실행 수단의 여러 부문으로 분류하여 제안

➡ 리우선언과 의제21은 17개 SDGs의 초안 역할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설립은 기업 세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 48명의 세계적 CEO 회의를 통해 “경로바꾸기” 보고서로 발간
시장, 무역, 에너지, 재무, 혁신, 기술, 변화의 리더십과 경영진 등 광범위한 경영주제를 다루고 최적의 실행 사례 소개
기업은 폐기물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
투자자와 은행이 지표로 삼을수 있는 친환경, 효율성, 기업의 요소를 평가한 ‘EEE’등급 사용 제안

- 다우케미칼 벤우드하우스 글로벌 환경문제국장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참여자로 인식되는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장기적 생존 능력이 결정될것이라 믿음

모두 함께 리스크 해결하기

- 창업가 존엘턴킹(John Elkington)은 지속가능경영의 3대 축을 의미하는 ‘Triple Bottom Line(TBL)’ 최초사용. 기업의 성과 평가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검토 해야한다 고 주장

TBL의 중요한 측면

- 첫째, 기업이 주주 중심보다 이해관계자 중심이 되어야함. (당시 기업계는 주주의 가치 극대화를 우수한 경영성과의 기준이었음)
 - 둘째, TBL은 새로운 회계 방식, 통합 보고, 중요성, 임팩트 측정, 임팩트 투자, 기타 유사 제도의 토대가 됨.
TBL개념 도입의 문제점은 재무상의 입력과 출력은 계산하기 쉽지만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노력과 결과는 정량화하기 어려움
따라서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기위해 TBL접근법에 기반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메트릭 요구
이에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와 같이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삼고 지지하는 조직과 협회들을 연구하였으며 TBL에서 기인한 많은 개념과 주체가
현재 지속가능성 노력에 핵심 동력이됨
- ➡ 최근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DSR) ’ 전문가와 새로운 명칭으로 생겨나는 지속가능성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략, 재무, 마케팅 사업의 핵심 분야에 참여시키는 추세 증가

유엔의 새로운 미션

- 1990년대 유엔의 코피아난 사무총장은 전세계 인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엔이 힘을 실어야한다고 주창하였으며 전쟁의 원인, 불평등, 자원 부족, 합의된 법의 부재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함
- 기업, 노동계, 시민단체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라는 공식 협업체를 제안하였으며, 글로벌콤팩트의 미션은 기업들이 10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SDGs와 기타 사회적 목표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임
-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권, 환경에 관하여 기업이 지켜야할 9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출범. 이후 부패방지를 위한 10번째 원칙 추가되었으며 이 원칙은 기업이 기업시민으로서 취해야할 행동의 기준점을 설정하며 SDGs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것임 (12,000개가 넘는 회원 참여중)
- 밀레니엄 정상회의 정책보고서 발간을 통해 유엔의 인권 정의에 새로운 ‘자유’개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가 지구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 명명
"우리가 현재 우리의 지속 불가능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유산을 약탈하고 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도 국제개발목표(밀레니엄 개발 목표) 고안(2000 ~ 2015)

새천년개발목표 의제(MDGs, 8개)

-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 유아 사망률 감소
- 임산부 건강 개선
-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 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



- 2015년 반기문 사무총장은 "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통해 10억이 넘는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서 구제되고 빈곤을 타계하고 더 많은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지구를 지킬수 있다고 발표
- 유엔은 극빈완화,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방지, 식수원 개선 및 접근성 증대가 전세계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으며 보편적인 교육은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초등 교육을 완료한 인구가 증가했다고 보고
-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공여하는 해외개발원조 역시 1996년 \$800억의 원조 1997년 \$620억(가장 저조)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3년 \$830억, 2015년 \$1,300억 기록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이제는 SDGs도 경쟁력

-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채택과 국가 순위는 국가의 이행도를 추적하는 기능이 됨
- 베텔스만재단과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사무국에서 매년 ‘SDG 지표 및 대시보드 보고서’ 무료 제공
- 보고서는 17개 SDG에 해당하는 각국의 이행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1부터 100까지 혼합점수를 생성하고 최종 목표에서 모든 국가들 서로 비교하여 순위 정하고 있음
- 2017년 1위 스웨덴, 2위 핀란드, 3위 덴마크, 4위 노르웨이(80점대 초중반)/5~10위 유럽국과와 일본 하위국가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차드이며 라이베리아는 42.8점으로 최하위

만약, 내가 SDGs를 준수하는 조직에 근무하고 있고,
내부 목표를 설정한 후 새로운 시설의 위치나 새로운 공급처 물색에 관 사업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할까?



- SDGs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경쟁력이 됨
- 지속가능한 국가로 브랜드화하여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이에 국가의 무역 이니셔티브 기조도 변하고 있음

01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사업 발전 방안으로서의 SDGs

- 리우회의에서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 출범하고 1990년대 엘킹턴의 TBL(Triple Bottom Line) 이론이 발표된 후 기업들은 기업 전략과 운영에 단순한 추가 기능이 아닌 "핵심" 기능으로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
- 지속가능성 수용은 순환 경제라는 개념으로 공장과 생산라인에서 시작되었으며 기업의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에 기반한 CSR(기업의사회적 책임) 노력과 마켓 포지셔닝으로 현장에서도 적용
- 현재 기업은 CSR (기업의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해당사업 관리 인력과 예산을 더욱 긴밀히 통제함

➡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핵심 사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

*SDGs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장려되고 표준화 과정을 거침*

*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 : 미디어를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이 특정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전문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기업 경영을 위한 리더십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개념

지속가능하게 리드하라

Leading Sustainably

토의주제

국내 ESG 평가지표는 적정한가? 보완, 수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

5.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체계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정보공시 (P) (5개 문항)	정보공시 형식	P-1-1	ESG 정보공시 방식
		P-1-2	ESG 정보공시 주기
		P-1-3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P-2-1	ESG 핵심이슈 및 KPI
	정보공시 검증	P-3-1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E)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E-1-1	환경경영 목표 수립
		E-1-2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E-2-1	원부자재 사용량
		E-2-2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E-3-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E-3-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E-3-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E-4-1	에너지 사용량
		E-4-2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E-5-1	용수 사용량
		E-5-2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E-6-1	폐기물 배출량
		E-6-2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E-7-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E-7-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환경 (E) (17개 문항)	환경 법/규제 위반	E-8-1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E-9-1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S) (22개 문항)	목표	S-1-1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S-2-1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S-2-2	정규직 비율
		S-2-3	자발적 이직률
		S-2-4	교육훈련비
		S-2-5	복지후생비
		S-2-6	결사의 자유 보장
	다양성 및 양성평등	S-3-1	여성 구성원 비율
		S-3-2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S-3-3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S-4-1	안전보건 추진체계
		S-4-2	산업재해율
	인권	S-5-1	인권정책 수립
		S-5-2	인권 리스크 평가
	동반성장	S-6-1	협력사 ESG 경영
		S-6-2	협력사 ESG 지원
		S-6-3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S-7-1	전략적 사회공헌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 항목
사회 (S) (22개 문항)	지역사회	S-7-2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S-8-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8-2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S-9-1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G) (17개 문항)	이사회 구성	G-1-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G-1-2	사외이사 비율
		G-1-3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G-1-4	이사회 성별 다양성
		G-1-5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G-2-1	전체 이사 출석률
		G-2-2	사내이사 출석률
		G-2-3	이사회 산하 위원회
		G-2-4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G-3-1	주주총회 소집 공고
		G-3-2	주주총회 개최일
		G-3-3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G-3-4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G-4-1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가구	G-5-1	내부감사부서 설치
		G-5-2	감사가구 전문성(감사가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G-6-1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			